

로마서: 믿음의 삶

15주차 “우리는 하나입니다”

로마서 12:3-8

2022년 10월 16일

-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책 중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
- 이 편지는 당신과 내가 실제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.
-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중-사랑...
- 신약을 읽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은 개인이

일관성이나 의식이나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. 하지만

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격려받습니다.

-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본 큰 단어는 이 단어 TRUST믿음입니다.

이 단어 믿음. 당신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.

-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.
- 이제 우리가 본 것과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읽은 내용입니다.

구약의 첫 장.

•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것은 무엇이 고장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
이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

그리고 신약에서 발견된 가르침을 통해.

• 이 관계를 깨뜨린 것은 믿음과 신뢰의 부족, 그리고 지금, 우리가 보는 것은 신뢰, 그것을 다시 결합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

• 창세기의 초기 페이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?

•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

또는 마음 속으로 “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. 나는 당신이 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

•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

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.

• 그래서 그 때 그 관계가 깨졌고, 오늘날 똑같은 이유로 그 관계가 깨졌다.

•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일을 원래대로 고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.

•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방법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.

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넣고 저쪽에 넣고 수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

• 사실,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공허한 종교입니다.
~와 함께

좋은 일;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진술과 정의,

그러나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

-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.

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습니다.

-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.

- 왜? 믿음과 신뢰가 자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성숙합니다.

- 더 많은 신뢰를 가질수록 더 친밀해집니다.

-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?

- 그래서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으며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, 당신과 저, 우리가

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.

-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에서...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몇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.

듣기 쉽습니다. 손쉬운 것은 부서진 채로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.

- 어려운 것은 그것을 고치는 것이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

- 당신과 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?

로마서 12:3

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

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지되 오직 근신하게 판단하여

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

- 내게 주신 '은혜'로....
- Grace - ' charis ', 복수형은 charismata - 은총의 선물입니다.
- 신약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.
- 나는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기 위해 선물을 받았습니다.

당신을 가르치기 위해. 그리고 그 은혜나 은사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
- 시작점:

“당신보다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마십시오”

생각해야 합니다.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.”

- 냉철함 - 말 그대로 그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.
- 자신에 대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습니다.
- 바울은 자기 인식, 자기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. 정확해야 합니다.
-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(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).
- 세상은 노력과 성취에 기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기준을 충족하면 우월감을 느낍니다. 실패하면 열등감을 느낀다.
-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독특한 정체성과 자아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았습니다.
- 결코 자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.

- 만일 그렇게 한다면, 당신은 복음을 당신의 내면에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.
- 바우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며 모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.
- 당신을 구별하는 것은 동기입니다.
-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- 1절에서 바울은 “살아 있는 제사” 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.

우리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삶의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것 입니다.

-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당신을 위해 행해진 일이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이 어떻게 사랑받고 무엇을 위해 행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.

- 그것은 우리를 안팎으로 변화시킵니다.
- 그래서 그는 당신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.
-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삽화를 사용할 것입니다.

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.

로마서 12:4-5

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가 다 가진 것이 아니요

5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

개별적으로 서로 구성원입니다.

-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.
- 그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...매우 중요합니다: ONE과 WE.
- 우리는 한 몸입니다.
- 그가 말하는 것은 ...(새롭거나 이상한 예를 들어) 교회,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한 몸이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.

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.

- 로마서에서는 국가를 황제 의 "신체"로 언급했습니다 .
-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 왕국, 새 사회. 그리스도의 몸(고전 12:12-27; 엡 1:23; 4:12-16; 5:23, 30; 골로새서 1:24).
- 그는 우리가 이 새 몸의 지체 또는 몸의 일부라고 말합니다.
- 우리 모두는 독특한 재능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
- 바울이 그의 '카리스'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도 '카리스마타'가 있습니다. 당신은 선물을
- 당신과 나에게는 능력기술 ...경험이 주어졌습니다....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.
- 이것은 우리 문화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.
- 우리 문화에서는 당신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입니다.

- 바울이 말하는 이 측면은 실제로 반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.
-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.
- 문화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이러한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
- 당신이 항상 원했던 그 직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?
- 원하는 교육은?
-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꿈을 이루다 등등?
-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?

개인적인 성공?

- 그것이 우리가 헤어지는 곳입니다.
- 당신이 특별하기 위해 이러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
-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.
-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되돌려주기 위해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. (피)

•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,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. 이것

TRUST가 필요한 곳입니다.

- '국가 원수'라는 개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
- 국가 원수들이 한자리에 모일때 그들이 대표자이며 가장

종종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.

- 바울은 또한 그 이미지를 빌려서 여러 곳에서 예수를 언급했습니다.

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라.

- 중요성은 무엇입니까?

- 머리 - 동기, 정체성, 삶의 근거를 얻는 곳.

- 예수님이 머리이실 때 그것은 당신의 동기, 당신의 정체성, 당신의 근거는 예수님안에 있습니다.

- 우리는 통일된 마음으로 함께 일할 때 이 세상에서 그를 물리적으로 대표합니다.

- 우리는 이것을 뒤집는 경향이 있습니다...그리고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.

- 우리는 머리이고 예수님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는 우리를 위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.

- 우리는 그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며 그에게 나아갑니다.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

- 우리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

우리의 은사를 식별하도록 권장 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 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

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사람은...예수님이십니다.

-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.

-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.

로마서 12:4-5

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가 다 가진 것이 아니요
5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
개별적으로 서로 구성원입니다.

-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속해 있습니다.
- 높은 수준의 헌신.
- 우리는 서로의 일부입니다.
-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합니다.
- 충성도가 높습니다.
-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지만
헌신적인 커뮤니티에서 그를 최고로 대표하십시오. 그들이 당신을 볼
수있는 곳
헌신적인 가족. 그들이 예수님의 한 면만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.
-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!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!
- 하지만 여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?
- 이는 긴장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. 화합과 다양성.
- 우리는 종종 화합에 초점을 맞춥니다. 우리는 통일되어야 한다, 우리는
통일되어야 한다!
-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개발하십시오.
- 그러나 관용은 낮은 쪽으로 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대단하지 않습니까!

- 그것은 누군가를 세워주지 않습니다.
- 나는 당신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.
- 몸은 단지 화합의 은유가 아닙니다. 또한 다양성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.
- 다른 기능을 가진 다른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.
- 우리는 관용을 넘어 축하해야 합니다.
- “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?”라는 말이 아닙니다.
- 우리는 차이점을 축하해야 합니다.
-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.
-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.
- 그렇다면 우리는 귀로 가득 찬 교회를 얻게 됩니다. 혹은 손이 많이 가는 교회.

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몸의 발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갑니다.

-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.
- 의식적으로 통일되고 다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!
- 다음 두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

로마서 12:6-8

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을 쓰자.

우리의 믿음에 비례하는 예언; 7 봉사하는 경우, 우리의 봉사에; 그 사람

그의 가르침에서 가르친다. 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대로 그 사람

- 여기에 나열된 7가지 선물은 대표적이고 예시적인 것이며 전체가 아닙니다.

-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
하나님이 주시는 선물.

- 그러나 바울¹은 모든 은사 목록을 작성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.

- 고린도전서 12:8-11; 28-31; 에베소서

4:11; 베드로전서 4:10-11, 당신은 그것이 다른 목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-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정말로 깨어진 행동, 즉 죄의 목록을 공유할 때 어떻게 됩니까?

그것이 죄의 전부입니까?

- 또는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든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.

- 그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할 때(다음 구절에서), 그것은 유일한 12가지가 아닙니다.

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.

- 이들은 대표자이며 확실히 귀하의 모든 측면이 그렇지 않습니다.

이 목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.

- 역사, 재능, 신체적으로, 정신적으로 당신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-
요점은 그것들이 모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.

- 그리고, 어떤 영적인 은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은사가 아닙니다.
- 바울이 “모든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”고 말한 선물은 없습니다.
-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윤리입니다.
- 당신의 은사가 무엇이든, 그 은사를 행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.
- 그러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.

기쁨-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.

-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양성을 기념합니다.
- 당신이 잘하는 것, 당신이 있었던 곳, 그것은 모두 선물입니다.
-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사용하고 있는 은사는 그가 본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.

랍비 학교와 이전에 가졌던 학교에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.

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.

-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므로 이 선물은 이제 몸에 대한 선물입니다.
- 바울의 요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가족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.

믿음. 초자연적 은사와 타고난 능력 사이의 엄격한 구분선은

바울에 대한 관심 -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.

- 교회는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오는 '장소'가 아닙니다.
-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.

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한 것.

- 바우로는 만약 사람들이 당신과 내가

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에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성장할 것입니다.

- 도전의 긴장감...
-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도록 하는 데서 오는 긴장
- 내 안전 지대를 벗어날 때의 긴장
-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얻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긴장.
-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.
- 그리고 당신의 친밀함,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.
- 제가 오늘 하는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

인생의 특정 시간, 정말 결정적일 때, 나는 내 선물을 사용했습니다...

가르치고, 교수하고...여름방학을 보내고...그리고 난 내 재능을 사용했습니다...

- 당신이 누구이든, 당신이 어디에 있든,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은사와 능력을 메시지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.

- 여러분 중 일부는...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.

- 여러분 중 일부는...알다시피, 여행, 프로젝트, 수업,

당신이 한 일,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켰고 당신은 친밀감을 가졌습니다...

- 여러분 중 일부는...완전히 새롭습니다.

- 요점은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...